

조선 후기 문학이 꿈꾼 '나눔'과 '더불어 살기'

이타와 시어
강명관 지음



“남산골 샌님 허생이 번 부자에게 돈을 빌려 말총과 과일을 매점매석해 큰돈을 번다. 군도(群盜·도둑무리)를 찾아가 돈을 나눠주고, 무인도에 '무정부(Anarchy) 공동체'를 꾸린다. 일본 나가사키 기근 소식을 듣고 그동안 축적한 잉여곡물을 팔아 은화 100만 냥을 확보한다. 허생은 100만 냥 가운데 50만 냥은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 40만 냥은 굶주린 백성 구제에, 10만 냥은 번 부자에게 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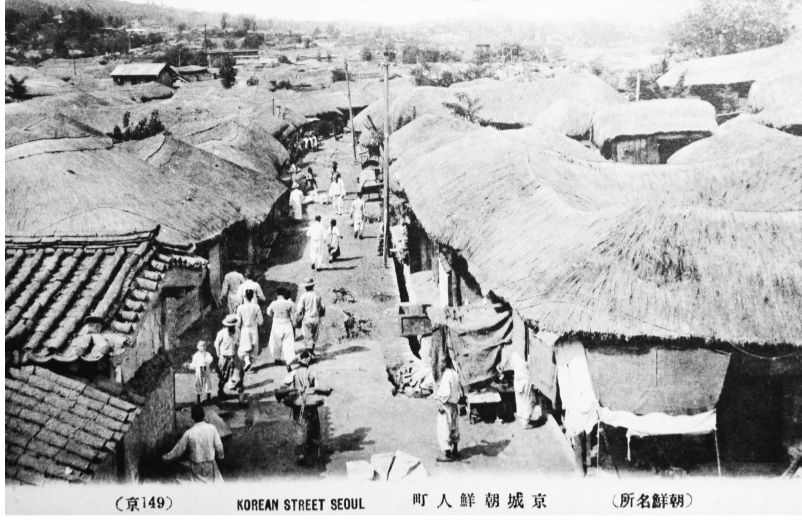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소설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실려 있는 '허생전(許生傳)' 줄거리이다. 같은 책에는 '홍순언 이야기'도 있다. 역관 홍순언이 북경에서 위기에 빠진 한 여성을 도왔는데, 그 여성은 병부상서 석성의 아내가 되어 홍순언에게 보화를 주어 은혜를 갚는다. 또 석성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조선파병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주스톰리이다. 이처럼 홍부전과 심정전 등 '이타(利他)-보상의 구조위에 축조된' 문학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 많이 양산돼 유통된 까닭은 뭘까.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명예교수는 신간 '이타(利他)와 시어(施與)'를 통해 남다른 관점에서 조선 후기 '이타적 행위와 그것에 대한 보상을 구조로 하는' 문학작품들을 살핀다. 생경한 시어라는 단어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순수 증여'를 의미한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 작품들을 '이타'와 '시어'라는 핵심어로 분석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작품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새로운 이해가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자본주의의 심부(深部)에 도달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경제인(Economic man)이다. 경제인인 우리에게 '이타'와 '시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진다. 부제로 '조선 후기 문학이 꿈꾼 공생의 삶'을 붙인 신간은 '홍순언 이야기'와 이타적 심성의 작화력, 이타적 심성의 작동원리, 이타-보상 담 출현의 역사적 이유 등 7개 장(場)으로 나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홍부전', '심정전'과 같은 허구적 작품도 있지만 천의(賤賤) 응립, '두금구전(傳)' 등 실존인물을 다룬 전기(傳記)물들도 양산됐다. 사노(私奴) 출신인 응립은 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시장에도 가지 않았다. 여성 두금구는 전 재산을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기증했다. 이들과 같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자기손실 감내'와 '보상기대 부재'는 이타-보상담(談)의 핵심적 서술원칙이기도 하다. 요즘으로 치면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는 경나 진주 김장하 선생과 맥이 닿는다.

조선 후기에 '이타-보상담'이 쏟아진 이유에 대해 저자는 "임진왜란·병자호란 양란이란 미증유의 전쟁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흉작과 기근, 전염병의 유행, 사족-관료체제의 수탈 강화, 화폐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출현한 빈곤화, 비윤리적 부의 축적, 윤리의 파괴를 초래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 사회의 집단 심성은 이타-보상담을 양산했다. 서울 중로 광희문 문루에서 바라본 왕십리 방향 마을거리. <출처 서울역사사카이브>

하고 강화하였다"면서 "그것은 사회생명과 신체생명의 소거 앞에 선 사회적 약자를 대거 출현케 하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선 후기의 문학은 이타-보상담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홍부전'은 '민중적 상상력을 통해 이타성을 회복함으로써' 부(富)의 편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시어는 인간의 이타적 심성에서 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안을 제시한다.

"문제는 순간의 감동을 넘어, 교육을 통해 여렸을 때부터 개인의 내면에 이타성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타성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것일 터이다." <푸른역사·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매일 다르게 골라 먹는 일간빵집=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권할 법한 책. 조리 도구의 활용법이나 곁들이기 좋은 스프레드, 일간 빵집 레시피들의 특성과 같은 중요 정보들은 물론 김파뉴 같은 메뉴를 응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모닝빵만 해도 '크렘브롤레 모닝빵', '하와이안 스파그 모스비', '피넛 크랩'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에그범벅 토스트', '복희와 몬테크리스토', '양질미 모나카' 등 핫한 메뉴 레시피를 공개한다. <세미콜론·2만2000원>



▲바칼로레아 철학 수업=매년 6월 프랑스 전 국민이 주목하는 논술시험 '바칼로레아'에는 대학 입학 자격이 걸려 있다.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예로 "노동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등이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지, 아이를 낳을지 비혼을 유지할지 등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 책은 바칼로레아의 실제 답안 과정을 따라가며 인간이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익출판·2만원>

▲정의가 잠든 사이에는=혼수상태에 빠진 대법관, 국제 음모에 연루된 대통령. 두 가지 소재를 버무려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를 써낸다. 대법원 서기로 일하는 에이버리 킴은 대법관 하워드 윈이 돌연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혼란을 겪는다. 그는 국가를 뒤흔들 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대법관의 부재로 인해 그

공백을 채울 방법을 논의하면서 펼쳐지는 논쟁, 음모를 마주해 간다. 유니버설픽처stv 드라마로 제작이 확정됐다. <비채·1만8800원>

▲가족의 그늘= '그늘'이라는 키워드로 사회 전면의 부조리를 관통한다. 사회 초년생부터 상갓집에서의 단상, 언어와 사람, 송충이와 나비, 오케스트라와 미혼부 등 다양한 주제를 들여다본다. 풍파 가득한 세상을 곡진한 시적 언어로 묘사하고, 시간 속에서 닳아 없어져 가는 삶의 흔적을 포착한다. 자기고백과 반성, 성장과 낙담의 미학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되어야 할 세상'까지 꿈꾼다. <시인동네·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선생님, 있잖아요=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생 교육계에 있던 글쓴이가 아이들의 글을 모아 펴낸 책. 40년 전에 출간했던 원고를 재단장해 다시 선보인다. 120여 개 글 가운데 54편을 추려 요시타케 신스케의 삽화를 더했다. 진솔한 아이들의 목소리는 성장기에만 생각할 수 있는 감정들이다. '된장국에 두부 여덟 조각', '유부 다섯 장', '파 열세 조각이 들어 있었다' 등 귀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주니어김영사·1만4800원>

▲꿀벌이 사라졌다=꽃의 수분을 돕고 꿀을 만드는 '꿀벌'은 지구에 꼭 필요한 존재다. 어느 날 꿀벌이 사라진 미래 마을

을 배경으로 꿀벌을 대신해 사람들이 직접 수분 작업을 하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내용이다. 이와 달리 가온 시 사람들은 수분을 대신하는 '로봇 벌'을 개발해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지북·1만4000원>

▲고양이의 꿈=커다란 집에 사는 고양이 '꿈'은 집 밖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하다. 꿈속 세상에서 정글로 떠난 꿈이는 집고양이 '집이'를 비롯해 다양한 고양이들을 만나 함께 논다. 이들은 꿈을 이단가로 인도하면서 파스한 세상을 선물한다. 상상의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온기 가득한 언어와 그림으로 형상화한다. <창비·1만6000원>

'혁신의 아이콘' 레고에서 경영과 창의성을 배우다

더 레고 스토리

에비타니 사토시 지음
류지현 옮김



레고 그룹 회장 요안 비크누스트프가 레고 블록이 가진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할 때 선보이는 프리젠테이션이 있다. 노란색 4종류, 빨간색 2종류의 레고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청중에게 나눠주고 60초 안에 이를 모두 사용해 '오리'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결과물을 함께 보며 사람들은 놀란다. 각기 다른 오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레고는 인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을 도출하고 발굴하는 도구"라고 말한다. 이론상으로 2x4 레고 블록 2개를 조합하면 24종류, 3개로는 1060 종류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6개로는 약 9억 종류의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같은 오리가 만들어 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 저널리스트 에비타니 사토시가 쓴 '더 레고 스토리-장난감 브랜드, 혁신의 아이콘이 되다'는 장난감과 테마파크를 넘어 영역을 확장중인 레고의 브랜드 파워와 원동력을 분석한 '위대한 장난감 왕국 보고서'다. 슬한 도전을 이겨낸 레고의 생존법칙은 경영 전술의 지침서이자 무한 경쟁의 시대, 개인들이 독창적인 창의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레고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저자는 덴마크 레고 본사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현장을 다니며 경영진, 과거 직원 등 수많은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고 제조현장, 조직문화 등을 세세히 살펴 책을 엮었다.

여러가지 플라스틱 블록으로 구성된 레고가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도구는 건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혁신 기업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대학 시절부터 레고 마니아였다. 구글의 로고 4가지 색상 중 빨강, 파랑, 노랑은 레고의 기본 블록에서 착안했으며 세계 각 지역 사무실에 레고를 비치하고, 레고를 사용한 직원워크숍을 연다. 2000

년대 이후 레고는 사회 인재 개발을 위한 창의력 툴로 주목받고 있다. 본인의 경험을 레고로 표현하는 교재 활용, 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드는 워크숍 등 레고는 곳곳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1932년 덴마크 서부 빌름에서 목수였던 창업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목재 완구를 제조·판매하면서 출발한 레고그룹은 현재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난감 브랜드 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위기는 또 다른 출발이 됐다. 1980년대 레고 블록의 특허가 만료 되면서 누구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디지털화 바람까지 불면서 레고는 휘청였지만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탄탄한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명확한 존재 의의를 세우는 전략으로 부활했다.

저자는 "블록 놀이를 통해 기를 수 있는 논리력과 창의력은 질서와 혼돈 그 자체다. 레고가 인간 본연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도구로 주목받는 것은 얼핏 모순될 만한 2가지 가치를 모두 궁정하고 일깨우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2만3000원·윌엑스리뷰>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